

제36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호남우도농악 도둑잡이굿

- 일 시/ 1995년 10월 12일 (목)
- 장 소/ 공주시 곰나루(관아마당)
- 주 최/ 문화체육부, 교육부, 한국문예진흥원, KBS
- 주 관/ 충청남도, 공주시

광주광역시

도둑잡이굿

도둑잡이굿



도둑잽이굿에 대하여

池春相(全南大教授)

오늘날까지 傳承되고 있는 수 많은 民俗藝術 가운데 農樂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湖南地方의 農樂은 湖南右道 農樂과 湖南左道 農樂이 독특한 가락과 진법으로 인하여 다른 어느 지방의 農樂보다도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湖南右道 農樂의 「마당밭이」에서는 각 과정마다 告祀를 지내 家神을 달래기도 하고, 상쇠의 德談으로 액을 몰아내기도 하며, 성주풀이를 비롯한 액막이, 중천맥이등의 노래로 액을 막아내기도 한다. 또 「판굿」에서는 각 잽이들이 소고춤, 장고춤, 잡색춤등을 演舞하여 구경꾼들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 주기도하고, 잡색놀이나 도둑잽이굿과 같은 民俗(喜)劇을 演戲하여 그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기도 한다.

이와같이 農樂은 가락과 陣法뿐 만 아니라 聲樂(唱), 舞踊, 演劇, 告祀, 德談등 다양한 民俗藝術이 총 망라된 綜合藝術이다.

「도둑잽이굿」은 상쇠를 우두머리로 하여 징 장고 소고등을 치는 잽이들을 我軍이라 하고, 대포수를 우두머리로 하여 할미 양반 참봉 각시와 같은 잡색들을 敵軍이라 하여 이들이 서로 꾸미는 군사(軍士 = 戰爭)놀이적 성격을 지닌다.

我軍은 規律이 엄하고 組織的이어서 軍隊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敵軍은 매우 해학적이고 喜劇的이며 기강 또한 해이된 상태여서 서로가 相反된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 굿은 我軍이 敵軍의 조리중에 의해 팽가리를 도둑맞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는데 그 과정이 28수(宿)라는 「28가지의 진법(= 戰術)」으로 표현된다. 28수의 진법이 끝난 뒤 대포수는 상쇠의 삼지창에 의해 죽게 되지만 占을 통해 다시 살아남으로써 서로가 화합한다는 줄거리를 갖는 이 굿은 「공동체의 隣保精神」을 강조하고 있다.

湖南右道 農樂의 專門 藝能人들은 “낮에는 33채요, 밤에는 28수(宿)라”하여, 「문굿」에서 연주되는 「33채의 가락」과 함께 「도둑잽이굿」에 나타나는 「28수의 진법」을 매우 중요시 했다. 그러나 오늘날 演戲되는 대다수의 農樂들은 가락 중심의 연기에 치중하고 있어 농악 본래의 綜合藝術的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굿은 농악을 綜合藝術로 승화시키는데 그 意義가 있다 하겠다.



도둑잡이굿의 내용

- 池春相 / 고증 및 각색
- 朴鏞載 / 지도

1. 판굿
2. 깡매기 분실
3. 28수(宿)
4. 대포수의 죽음
5. 조리중의 점(占)과 잡색놀이
6. 대포수의 회생
7. 허허굿

- 상쇠는 진긱가락으로 입장하여 아군과 적군을 두패로 갈라 진을 친다.
- 아군은 중앙에서 큰 진을 치고, 적군은 아군을 둘러싼 구경꾼 밖에서 아군과 빗갈리게 진을 친다.
- 이때 음식상이 나오면 아군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농악을 잠시 끝낸다.

상 쇠 : 나팔을 분다.

-잡색들 : 구경꾼 사이로 고개를 드밀고 들어다 본다.

상 쇠 : 나팔로 땡, 땡, 나팔을 분다.

-잡색들 : 깜짝놀라 도망간다.

상 쇠 : 술령수-

대원들 : 예 - 이 -

상 쇠 : 성안에 도둑이 들었으니 악기 기저 중창하라.

대원들 : 예 - 이 -

-이때 대원들은 악기를 자리에 놓고 술상 앞으로 모여 앉는다.

대포수 : (조리중이 가져온 나팔을 불어도 소리가 만나니 나팔을 갖다 놓고 깡매기 가져오라 한다)

조리중 : (나팔을 갈다놓고 깡매기를 가져다 대포수 준다.)

대포수 : (한번 때려본다. 깡- 좋아라고 품안에 감추고 으젓이 돌아다닌다.)

상 쇠 : 자-대원들 술도 떡도 많이 먹었으니 우리 한바탕 놀아보세

대원들 : 어- 그러재

상 쇠 : 어- 어 내 깡매기가 없어졌네 큰일났다 큰일났어.

대원들 : 어- 어 큰일이내 큰일이여 인자 굿도 못치것내

상 쇠 : 술령수-

대원들 : 예 - 이 -

상 쇠 : 모든 군사들은 출전 준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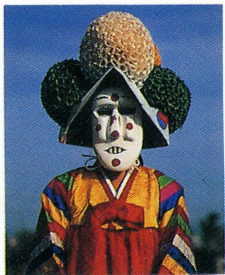
대원들 : 예 - 이 -

상 쇠 : 징수-

징 수 : 예 - 이 -

상 쇠 : 처기 저 대포수놈 배가 똥똥헛것 봉개 저놈이 도둑놈갈 어 그러니 빨리 잡아오개





징 수 : 예 - 이 - (대포수 옆으로 가서) 야 - 대포수야 우리상
 쇠꺼서 너 잡아오라고 한다. 가자
 대포수 : (깜짝놀라) 왜 나를 잡아오라고 해 나뭇간다 해라
 징 수 : 야 - 이놈아 오라고 하면 얼른가 이놈아
 (징 - 하고 징을친다.)
 대포수 : (깜짝놀라) 가자(징수 따라온다.)
 징 수 : 대포수놈 잡아 왔오
 상 쇠 : 대포수 너이놈 도둑놈 못봤냐
 대포수 : 야 - 나는 도둑양반 못봤어라우
 상 쇠 : 네이놈 머시라고 도둑놈 못봤냐고 형께 도둑양반 못봤
 다고 네이놈 네놈이 도둑놈이구나 얼름 내 깡매 안내놓
 먼 니 목아지가 달아난다.
 대포수 : 나 - 참말로 깡매기도 못보고 도둑양반도 못봤오
 상 쇠 : 네이놈 네품에 뭇이 있간디 고록코 똥똥허냐
 대포수 : 저 - 한양 우리 딸 집에서 떡이랑 노물이랑 많이 먹어서
 배가 똥똥허요
 상 쇠 : 너 이놈 떡을 많이 먹었다니 떡을 좋아한것 같다. 떡타
 령 아냐
 대포수 : 떡타령이라우 떡타령 한번 허깨라우
 상 쇠 : 그래 한번 해 보아라
 대포수 : 이떡저떡 광주떡 ~ 떡장수는 돌림떡
 술장수는 찌개미떡 ~ 두부장수는 비지떡
 기름장수는 꿩떡 ~ 유기장수 깨끼떡
 눈별같이 흰떡 ~ 또랑건너 홀떡
 목구멍은 꿀떡 ~
 상 쇠 : 네이놈아 꿀떡이고 홀떡이고 그만두고 내 깡매기 내놔
 이놈아 니 목을 찢라부리기 전에
 대포수 : (깜짝놀라) 깡매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도망가니 - 깡 -
 상 쇠 : 저 도둑놈 잡아라 저 도둑놈(영기하나를 들고 진을 친
 다)
 대포수 : (영기하나를 들고) ※(상쇠와 빛갈리개 진을 친다.)
 수종쇠 : (잡자 잡자 도둑놈잡자) 가락의 농악을 친다.
 상 쇠 : ~~8자~~, 8자, 태극진등으로 28수(宿)의 진을친다.
 어느 시점에서 삼지창으로 대포수 투구를 걸어 빛긴다.



수종쇠 : (잡았다 잡았다 도둑놈 잡았다)
빠른 가락으로.....

대포수 : (두손을 비비고 절을 하며 투구를 따라다니며 살려달라고.....)

상 쇠 : (삼지창에 걸린 투구를 땅에 놓으면 대포수의 죽음을 의미한다)

수종쇠 : 농악을 끝인다.

할 미 : 어매 우리 장수가 죽었다 죽었어

각 시 : 참말로 죽었내 죽었어 어매 어찌까이 - 어째

잡색들 : 어매 큰일났내 큰일났어 아-이-고
(엎드려 땅을치며)

양 반 : 중놈아 - 야 - 중놈아

조리중 : 샌님 - 불렀우 -

양 반 : 오냐 대포수가 죽었으께 니놈이 점해가고 점괘 나오는 대로 빌고 굿해서 살려봐라

조리중 : 야 - 알았어라우

잡색들 : 자 - 우리 난장을 벌러가고 돈벌어 우리장수 살리자
(화투판, 옷판, 투전판을 벌린다.)

할미각시 : (물방구, 점상을 가져다 투구앞에 놓는다.)

조리중 :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사바하
(대포수 살아나라 빈다.)

양 반 : 자~ 투전한번 빼보시요

참 봉 : 어디한번 빼보자 아이고 구땅이다 구땅.

양 반 : 야 - 이놈아 나는 장땅이다 장땅 내가 먹었다.
아니 - 근디 너는 왜 나뻐다이 한쪽은 빨허고 한쪽은 흰허냐

참 봉 : 허허~ 참 빨것다 물어보내 돈 따먹었으면 그만두지

양 반 : 아 - 이놈이 누구한테 말대꾸냐 이놈

참 봉 : 내가 벼슬을 많이 허다봉께 공술을 많이 먹어서 요렇게 생겼다. 왜왜웁

양 반 : 오야 알았다 알았어
(뒤로 넘어지면서)

좌 창 : 야 - 이놈아 맷곳이나 깃을 까봐 이놈아

홍작삼 : 자 - 꽤비다(7곳) 꽤비



좌 창 : 야- 이놈아 나는 갑오다(9끗) 갑오 돈이리 내와

홍작삼 : 어-허 돈만 일어 뿌렸내- 개팽좀 주씨요

좌 창 : 멋이라고 개팽. 야 이놈아 개가 팽이 먹는다 봤냐 이놈
아

우 창 : 어-허 나는 손님이 없다 웃놀 사람이 이렇게 없당가
웃한번 놀개 누가 와보랑께

대포수 : (투구를 쓰고 자리에 앉은자) 살았다는 의미다.

할 미 : (절을 허다가 깜짝놀라) 아 야- 이놈들아 큰놈아, 작은
놈아, 우리 장수가 살아났다 살아났어-

잡색들 : (놀음 하다 건성으로 예)

할 미 : 우리 장수가 살았다 살아났어

잡색들 : (깜짝 놀라며 일어나 대포수 앞으로 가며)

뫼이라우 우리 장수가 살았어 살아났어 참말로 살았내
살아났어 시상에

양 반 : 허-참. 그중놈 굿한번 잘했다 잘했어

잡색들 : (좋아라고 춤을 추며 좋아라고 기뻐한다.)

상 쇠 : 자- 대원들

대원들 : 예- 이

상 쇠 : 자- 이제 깡매기도 찾고 대포수도 살아났으니 다함께
도둑과 모든 잡귀잡신을 쫓치기 위해 허허굿이나 허보
새

대원들 : 어- 그러재

상 쇠 : 허, 허, 굿(12체굿)을 친다.



